

문: 삶과 꿈
송현호 교수님

소설 돈키호테의 소설적 특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통한 현대의 시사점
탐구

2015***** 영어영문학과
한기용

1. 들어가는 말

소설 돈키호테는 17세기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에 사는 한 노신사가 당시 한창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정신 이상을 일으켜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이자 눈치가 빠른 농부 산초 판사를 시종으로 데리고 떠나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된다. 그의 하인과 달리 이상주의자인 우리의 기사 돈키호테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갖은 사건을 일으키고 다닌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여전히 돈키호테를 그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서구 문학사에서 ‘중세와 근대의 경계’, ‘최초의 근대 소설’, ‘포스트모더니즘의 배아’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¹⁾ 17세기 초에 쓰인 돈키호테가 18세기 말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낭만주의에 빛대어서 근대소설로 분류됨과 동시에 19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배아로 평가받게 된 데에는 이전의 소설과는 다른 돈키호테만의 문학적 특징이 앞선 시대의 낭만주의와 근대소설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에 맞게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돈키호테는 내적특징을 바탕으로 독특하게 글을 전개해나가는 세르반테스의 표현방식과 더불어 여러 등장인물들과 관련되어 보여주는 창작 의도, 그리고 입체적으로 자신의 심리를 진행시킴과 동시에 변화하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문학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책의 이러한 소설적 특징과 문학사적 의의를 바탕으로 소설 돈키호테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2. 소설 돈키호테의 소설적 특성

2.1. 소설 내적인 특성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액자식 구성이란 사진이나 그림이 액자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작가가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²⁾ 즉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구성으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이야기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설 돈키호테 역시 이러한 액자식 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책을 보면 중간 중간에 돈키호테가 주인공이 아닌 이야기들이 끼어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돈키호테가 중심이 되는 내부이야기와 짝초나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 외부이야기가 존재하고,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작중 인물들에 의해서 또 다시 나타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이 소설의 내적인 특징으로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따르는데 있다.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란 일반적으로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가 같은 주제나 인물을 중심으로 짜여진 연작형태

1) 김경범, 세르반테스 깊이 읽기: 「돈키호테」, 2007

2) [네이버 지식백과] 왜 액자식 구성을 쓰는 걸까요? (국어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문학질문사전, 2013. 9. 15., 북멘토)

의 구성방법을 말한다. 돈키호테 역시 이러한 구성을 따르며 이를 통해 독립된 여러 이야기들을 통일성을 갖도록 모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설 돈키호테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지닌다는 점이다. 문학 평론가 르네 지라르는 소설 주인공들의 욕망을 삼각형 구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서구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특징을 분석해 내려고 했다. 지라르에 따르면 모든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고 한다.³⁾ 여기서 무언가를 욕망하고 소유한다는 것은 개인이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모습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조에서 주인공들은 욕망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인 매개자를 통해 대상을 모방할 수밖에 없는 간접화된 구조를 띤다는 것이다. 즉 주체가 대상을 직접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진짜 욕망이라면, 매개자를 통해 대상을 간접적으로 욕망하는 것은 가짜 욕망인 것이다. 이를 소설 돈키호테에 적용해 보면 주인공 돈키호테가 되고자 한 것은 이상적인 방랑기사였다. 그런데 이상적인 기사가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골 지방의 아마디스라는 훌륭한 기사를 모방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아마디스라는 매개자를 모방함으로써 이상적인 기사가 되고자 하는 간접화된 욕망인 것이다. 그의 하인 싘초 또한 이러한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보인다. 작은 섬의 영주가 되고자 하는 직접적인 욕망을 돈키호테라는 욕망의 매개자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소설에 나타나는 욕망의 구조는 단순한 삼각형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소설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서로가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는 복잡하고 중첩된 구조를 띠기도 한다.

2.2. 근대 소설적 특성-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소설 돈키호테를 보면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함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어디부터가 허구이고, 어디까지가 진짜 현실인지 헷갈리게 된다. 이러한 허구와 현실의 모호함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돈키호테에 드러난 서술적 모호함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름에도 드러나듯이 모더니즘으로부터 출발한다. 혼돈을 직시하고 감정의 거리두기를 통하여 질서를 찾으려던 것이 모더니즘이라면, 개성을 강조하고 기준을 무너뜨리며 혼돈 그 자체를 받아들여 하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차이를 생각해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⁴⁾ 왜냐하면 모더니즘 자체의 고급화된 예술양식, 감흥의 절제, 그리고 소설은 진지한 도덕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가진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드러내는 말로는 다양성, 주관성, 허구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포스트모더니즘은 패러디와 환상적 리얼리즘의 기법을 사용하여 소설 속에서 환상과 현실을 혼합함으로써 온갖 진리가 허구임을 드러낸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작가가 작품 안으로 들어와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개연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특징은 돈키호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3)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화평론가협회 편, 국학자료원 pp561~562

4)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3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법은 돈키호테 내에서 자주 보여지는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가 허구의 역사가 '베넹헬리'를 이야기의 작가로 설정한 것이다. 실제 작가인 세르반테스는 작품 내에서 자신은 제 2의 작가이고, 베넹헬리의 이야기를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며 뒤로 물러나 있다. 그러면서 가상의 작가인 베넹헬리가 마치 실존하는 인물처럼 그려진다.

작가는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실린 문서에 더 이상 이 사건의 행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사죄하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제2의 작가인 나는 이런 신기한 이야기가 망각의 법칙에 내맡겨졌으리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라 만차의 천재들이 이 유명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의 실록이나 책상 서랍 속에 한 조각도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그토록 호기심이 없었더라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작가는 안타까워하고, 곧 이 즐거운 이야기의 결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돈키호테 1권 8장 pp123-124

나는 그 책이 바로 돈 끼호떼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빨리 그 첫 부분을 읽어보라고 했다. 내 말을 따라 그 즉시 그가 아랍어를 에스빠냐말로 옮긴즉 이렇다고 했다. '라 만차의 돈 끼호떼 이야기, 아라비아의 역사가 시대 아메떼 베넹헬리 지음' -돈키호테 1권 9장 p.128

그 때문에 독자인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점점 베넹헬리가 실존인물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실과 허구의 혼동은 이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돈키호테의 집에서 친구 신부가 이발사에게 설명하고 있는 <라 갈라떼아>는 돈키호테가 출판되기 전에 세르반테스가 실제로 지은 목가소설이다. 즉 작가 본인과 본인의 다른 작품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것이다.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하는 이러한 기법은 단지 서술자의 역할만 하던 전통적인 저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서술자의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작품 속으로 뛰어들어가 등장인물들 사이에 개연성을 무너뜨린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많은 책들과 작가들 중 몇몇은 실제 작가와 그의 작품들인데, 이로 인해 사실이 허구의 세계에 들어가고 허구의 세계가 사실로 위장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작품의 관객인지 작품속의 주인공인지 모르는 혼동과 환상 속에 빠지게 된다.

3. 소설 돈키호테의 문학사적 의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쓰는 목적을 소설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책을 쓰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기사도 문학과 이상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로운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어했다. 기사도 문학은 중세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해 점점 유행하였다. 기사도 문학의 주된 내용은 기사가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군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이상적인 여성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바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⁵⁾ 하지만 실제 기사의 모습은 이와 달랐다. 중세의 기사는 생각만큼 멋있지도 않았고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는 허울뿐인 존재였다. 세르반테스는 바로 이 현실과 문학 사이의 두드러진 간극을 풍자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소설을 쓴다는 것이 금기시 됐기 때문에 기사소설이라는 형식 속에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집어넣어 그로 하여금

5) [네이버 지식백과], 돈키호테

자신의 목적을 대신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 본인의 생각을 투영하기도 했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도록 모호하게 남겨둔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볼 때 특정 분야의 한 가지 주제만을 다뤘던 과거의 소설들과는 다르게 소설 돈키호테는 근대소설로 분류할 만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기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야기의 역동성과 심리적인 진행의 측면에서도 다른 소설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보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 키호테는 분명 문학적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그가 이 모든 것을 의도해서 집필하거나 후대문학의 경향을 예측한 것은 아니라 이 평가가 무의미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이 소설에서 보여준 다양한 기법과 선구자적인 면모는 충분히 고평가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

4. 결론

분명 우리는 돈키호테를 그저 현실의 무게감을 모르고 이상에만 집착한 채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이상주의자 혹은 자신만의 몽상에 빠져 세상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로 돈키호테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물론 돈키호테는 현실 상황에 대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정보수용도 부족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일삼는 인물이다.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와 대의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취업난에 휩쓸려 쉽게 절망감에 빠지는 요즘 세대들과는 달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게 행동한다. 우리 역시 그와 같은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요즘의 학교는 20대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인성함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일종의 직업양성소의 역할만 하고, 학생들 역시도 그렇게 하기만을 강요받고 교육받는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일은 줄고 돈 많이 버는 방법만 찾게 되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21세기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상황의 한계에 속박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항상 도전하는 자세를 지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태도를 지닌 21세기 청년들은 분명 남들에게 무시 받는 존재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경범, 세르반테스 깊이 읽기: 「돈키호테」, 2007
2. [네이버 지식백과] 왜 액자식 구성을 쓰는 걸까요? (국어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문학질문사전, 2013. 9. 15., 북멘토)
3.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화평론가협회 편, 국학자료원 pp561~562
4. 권택영,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3
5. [네이버 지식백과], 돈키호테